강남 한복판 사찰 명상길 조성된다

봉은사 · 강남구청, 4월 12일 업무협약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표 도심사찰인 서울 강남 봉은사 숲 속에 시민들이 산책과 명상을 함께할 수 있는 명상길이 조성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4월 12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명상길 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봉은사 대웅전 후사면 일대 현재 산책로가 대규모로 정비돼 누구나 함께할 자연속 힐링과 명상을 함께할 수 있는 명상길로 재탄생한다.

총 예산 5억 5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명상길에는 벤치 · 음수대 · 안내표지판 · 산림욕체험장 등 시민 이용을 위한 시설이 세워지며 현재 흙길인 산책로의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 · 로프와 안전장치 등이 설치된다. 또한 녹화를 위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수목이 식재되며 계절에 맞는 꽃장엄을 위해 화단 등도 개보수된다.

총 1.1km에 4개의 구간 구성
휴식 · 전망 · 산림욕 등 제공
향후 수행프로그램에서 활용

명상길은 1.1km에 걸친 총 4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진여문부터 봉은사 교육관 뒤편으로 향하는 휴게공간을 겸한 휴식길과, 봉은사 지장전과 북극보전 뒤편 숲을 통하여 미륵대불보전 전 사찰과 도심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망길, 미륵보전 뒤편으로 봉은사 템플스테이관 뒤편 소나무 숲 및 잣나무 숲을 통해 봉은사 인근 웨딩홀로 나올 수 있는 삼림욕길, 봉은사 인근 웨딩홀에서부터 다래헌과 보우당 뒤편의 대나무 숲 사이로 자연석 계단으로 조성되는 돌길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봉은사와 강남구청은 4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1km 구간의 명상길을 조성키로 했다.

봉은사는 명상길 완공 후 시민 개방과 함께 명상길을 활용한 템플스테이 및 수행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바깥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장소가 바로 도심 속 공원과 숲"이라며 "시민들과 불자들이 산책하고 명상도 편하게 하게끔 강남구청이 지원해 감사하다. 명상길이 봉은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많은 분들이 봉은사 숲에서 치유의 기운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균 구청장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문화와 도심 속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봉은사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자연과 사찰을 도시 한복판에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무협약과 함께 정순균 구청장은 봉은사 인근 산책로 일대를 라운딩하며 시설 개보수 지점 등을 점검했다.

봉은사 신도인 청정화 김하진 씨는 "평소에도 봉은사에서 산책로를 걷곤 하는데, 명상길로 조성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더욱 많이 걸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정순균 강남구청장, 안재혁 강남구 도시환경국장, 김현경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도 이겨낸 포교사 고시 응시생

4월 10일 포교사 고시 실시

전법 포교 일선에 임하는 조계종 포교사를 뽑는 제26회 포교사 자격고시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4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10개 고사장에서 제26회 일반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1차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고시에는 코로나19 기간임에도 일반 포교사 455명, 국제포교사 17명 등 총 472명이 응시했다. 필기시험은 중간 휴식시간 20분을 포함해 60분씩 1,2 교시로 치러졌다.

방창덕 포교사단 단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고시장을 방문해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겠다는 굳은 각오와 신심으로 서원한 포교사 지망생"이라며 "간절한 발원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부처님이 모르시지 않을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연등회 'A to Z' 전시로 만난다

연등회보존위 · 불교중앙博 '연등회' 특별 전시 개막식
오는 7월 23일까지 진행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개막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와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는 4월 13일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해 12월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진행된 '천 갈래의 빛, 연등회' 전시에 이어 진행되는 두 번째 전시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해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박종화 불교중앙박물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연등회는 신라시대부터 천년이 넘는 기나긴 역사 속에 전승되어 온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무형문화재이며 축제"라면서 "이번 특별전은 연등회가 시대마다 창조적으로 전승된 역사를 되짚어 보고, 문화적 가치와 정성이 담긴 소중한 의미를 나누고자 기획됐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많은 분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7월 23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는 7월 23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은 총 3부로 진행된다. 제1전시실은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비롯해 연등행렬의 연원과 현대 연등행렬의 구성을 전시하며 제2전시실은 연등회의 역사와 문화 등 제작 과정으로 구성됐다. 제3전시실은 함께하는 연등회로 남녀노소, 내 · 외국인 등 참가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영상과 사진으로 채워진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직접 박물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연등회보존위원회(www.연등회.kr)와 불교중앙박물관(museum.buddihism.or.kr) 홈페이지를 통해 VR로 연등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감동과 역사의 연등회 사진 · 자료 공모전'을 통해 개인 연등회 자료를 함께 향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올해 축소 진행되는 연등회의 아쉬움을 달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EM지구사랑, 종교인 환경교육 열어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서
4월12일 교육일정 시작
환경부 교육 사업 선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계 환경교육이 시작됐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대표 혜솔, 이하 EM지구사랑)은 4월 12일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제1회 종교인 환경교육을 진행했다.〈사진〉

EM지구사랑의 이번 환경교육은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의 5대 종교 종교인 환경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EM지구사랑은 10개 종교단체 중 불교계 사찰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최미희 강사의 지도하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 첫 강의로 '생태전환, 삶의 방식변화와 실천'이 진행됐으며, 진주지원 신도 30여 명이 수강했다. 강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질병생태학자 황주선 박사의 '서식지 파괴와 전염병'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적 약속 및 실천법 등이 진행됐으며, 설문조사도 이어졌다.

이번 12일 진주지원 교육을 시작으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승단 교육이 진행된다. 이 강의에서는 강사로는 최서윤 생태시민교육연구소 공동대표와 심선화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나서며 한마음선원 본원 및 국내외 지원을 대상으로 총 54차에 걸쳐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병행된다. 4월 18일 '기후변화 실태와 우리의 나아갈 길', 4월 19일 '지구를 살리는 녹색기초생활습관교육1', 5월 2일 '지구를 살리는 녹색기초생활습관교육2', 5월 3일 '녹색사찰 가꾸기' 등이 진행된다. 전체 교육일정은 11월 30일까지 총 54회로 126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 혜솔 스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위기에서 초래된 결과"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실현해야 할 실천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씩 변화해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길 바란다"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EM지구사랑은 2018년부터 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로 선정돼 3년 동안 환경 분야에서 전법교화활동을 해오고 있다. (010)5095-0509

노덕현 기자

부처님오신날 맞아 전국사찰 마스크 지원

2600여 사찰에 50만장 배포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이 전국 사찰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봉축행사인만큼, 마스크 지원을 통해 각 사찰을 격려하고 대면 · 비대면 행사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8일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사찰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단 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전국 사찰에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마스크 제조업체 ㈜에이스바이오메드(대표 한현우)와 마스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필요수량의 반을 구입할 시 나머지 반은 기부형태로 제공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스크 지원대상은 교구본말사를 비롯해 공찰과 산내암자. 포교소와 해외사찰, 군법당, 선학원 가등록 사찰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에 전국 2626개 사찰에 50만 장 가량이 전달될 예정이며, 종단에 기부하는 마스크에 한해 종단 CI인 '삼보륜'을 사용토록 승인했다.

조계종은 4월 30일까지 전국 사찰에 마스크 발송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